

삶의 만족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양옥경*

I. 문제제기	1
II. 이론적 배경	2
III. 「삶의 만족도」의 구성	3
IV. 삶의 만족도 설문본의 구성	4
V. 결론	5

I. 문제제기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진정한 의미는 객관적인 복지조건에 조용하는 주관적인 복지와 안녕(well-being), 즉, 삶의 만족일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조건과 달리 삶의 만족은 인지에서 부터 태도표출에 이르는 대단히 종합적이며 주관적인 개념임에 따라, 삶의 만족을 구성하는 요인의 적출은 물론이고 이의 측정이 줄곧 어려운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30여년간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주관적인 삶의 질 또는 삶의 만족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척도가 개발되었다. 대표적으로 Nugarten의 Life Satisfaction Index, Bradburn의 Affect Balance Scale, Andrews & Withey의 Delighted-Terrible Scale, 그리고 Campbell의 Index of General Affect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삶의 만족을 정신건강 상태나 사회적응도와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척도의 구성 역시 행복, 도덕성, 성공적인 삶, 정신건강, 기쁨, 정서, 주관적인 안녕 등의 극히 제한된 항목만을 다루고 있

* 이화여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다. 이러한 항목구성은 정신장애인은 물론이고 일반인의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항목은 정신장애인의 경우, 이들 질병의 특성상 만족도가 낮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본원적인 한계가 있는가 하면, 일반인의 경우 극히 제한된 범위의 삶의 만족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요컨대 삶의 만족 자체가 영역별로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존의 척도구성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개념과 함께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만족이 중요하게 거론되면서 이들에게 적절한 삶의 만족 척도구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들의 삶의 만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신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척도는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증명할 수 없어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데 있어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구가 별도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이 일반인의 삶의 만족과 굳이 다른 차원의 것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 하나의 이슈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척도를 구성하고, 이 척도의 이론적 실제적 타당성 및 안정성을 검색한 후 일반인 뿐 아니라 삶의 질의 차원에 있어 일반인과 차별될 이유가 없는 정신장애인이나 장애인 또는 노인 등 특수계층에 확대적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기존의 삶의 만족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검토하면서 척도의 내용을 구성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 척도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함과 동시에 요인분석을 통해 삶의 만족을 구성하는 영역을 세분화할 것이며, 각 영역은 삶의 만족에 대한 하위척도로 위치지워 질 것이다. 다음으로 이렇게 세분화된 하위척도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자의 삶의 만족수준을 분석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삶의 만족을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개인 자신이 인지하고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¹⁾으로 정의한다면 이 정의에 대한 해석은 개인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만큼이나 다양할 것이다. 각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 삶의 비중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도 생활안정, 적응성, 자아인식, 정신건강, 기쁨, 안녕, 복지²⁾ 등의 여러 영역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를 논의함에 있어 대상집단의 특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만족의 내용이나 정도도 다양할 것이다.

Campbell은 삶의 만족 또는 주관적 안녕이란 한 개인에게 있어 그가 가장 경험하고 싶어 하는 수준과 현재의 생활조건간의 비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³⁾. Meadow도 주어진 시간속에서 한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만족 정도는 그가 갖고 있는 삶의 기준과 그가 현재 살고 있는 현실간의 인지적인 비교의 함수이다⁴⁾라고 역설하면서, Carp & Carp의 판단이론(Judgment Theory)을 차용하여 만약 한 개인이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낫다고 평가한다면 그는 만족할 것이고, 스스로를 더 못하다고 평가한다면 불만족할 것⁵⁾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같은 기준과 현실간의 판단은

1) Lehman, A.F., N.C. Ward, & L.S. Linn, "Chronic Mental Patients: the Quality of Life Issu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39, 1982, p.1271.

2) Andrews, F.M. & S.B. Withey,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Plenum Press, 1976.

3) Campbell, A., P.E. Converse, & W.L. Rodgers,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76, pp.13-17.

4) Meadow, H.L., J.T.Mentzer, D.R.Rahtz, & M.J.Sirgy, "A Life Satisfaction Measure Based on Judgment Theory", Social Indicators Research, No.26, 1992, p.25.

5) Meadow, H.L., J.T.Mentzer, D.R.Rahtz, & M.J.Sirgy, "A Life Satisfaction Measure Based on Judgment Theory", Social Indicators Research, No.26, 1992, pp.23-59.

타인과의 비교에서 뿐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의 비교에 의해서도 판단 내려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삶의 만족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통합적 삶의 만족연구와 영역별 삶의 만족 연구의 둘로 구획된다. 통합적 삶의 만족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주관적 삶의 만족을 주 관심사로 하여 정신건강상태나 적응도를 삶의 만족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우울, 기쁨, 분노, 흥분, 외로움, 불행함 등을 측정하였다. 반면에 영역별 삶의 만족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객관적인 삶의 질을 강조하면서 삶의 영역을 신체, 주택, 물질(재산), 직업, 가족, 종교, 그리고 여가 및 사회생활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지표화하고 있다. 삶의 질 연구 중에서 최초의 영역별 연구라고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Flanagan의 연구는 삶의 질을 15개 차원에서 측정하고 있는데 물질, 건강, 배우자(이성친구), 자식, 가족(친척), 친구, 자선행위, 지역사회활동, 지적발전, 인격적 이해 및 계획, 직업, 창의적 표현, 사회화, 오락적 활동, 그리고 오락에의 참여로 세분화하여 측정하였다⁶⁾.

통합적 삶의 만족 연구가 일반인을 주대상으로 한 반면에 영역별 삶의 만족도 연구는 정신장애인이거나 노인과 같은 특수대상층을 주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Lehman 같은 학자는 삶의 만족도를 주택, 가족, 사회관계, 여가, 활동, 재정, 안전, 일, 건강의 8개 8개 분항으로 측정하고 있으며⁷⁾ Baker는 Lehman의 8개 영역에 덧붙여서 기쁨, 같이 사는 사람, 그리고 병원생활 등 15개 영역에서 15개 문항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⁸⁾.

영역별 삶의 만족에 관한 조사연구는 정신장애인 대상 연구에서 주로

6) Flanagan, John C., "A Research Approach to Improving Our Quality of Life", American Psychologist, Vol.33, 1978, pp.138-147.

7) Lehman, A.F., "The Effects of Psychiatric Symptoms on Quality of Life Assessments Among the Chronic Mentally Ill",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Vol.6, 1983, pp.143-151.

8) Baker, F. & J. Intagliata, "Quality of Life in the Evaluation of Community Support System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Vol.5, 1982, pp.69-79.

찾아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는 아직까지도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소 환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Lehman은 자신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8개 영역에서 만족도를 측정하였는데 환자들이 일반인보다 훨씬 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환자들은 특히 일, 재정상태, 안전영역에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로는 김영돈이 그의 동료들과 연구한 정신질환자의 생활만족지수에 관한 조사¹⁰⁾가 대표적이다. 입원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수용-만족도와 성취-만족정도를 측정하였는데 무직자와 피가학성 인격장애자들에게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Baker와 Yang 등은 지역사회치료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Baker의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지지프로그램에서 대체로 만족한다는 것이었으며¹¹⁾, Yang의 연구는 자기집이나 부모집에 사는 사람들이 장기수용시설에 사는 사람들 보다 주거상태에 관해서는 만족하였으나 일반적 삶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¹²⁾.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영역별 삶의 만족 연구는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아직까지 표준화된 척도가 없어 연구자마다 자신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척도 자체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증명해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는 앞서 문제제기에서도 지적하였다시피 삶의 만족 척도를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개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척도의 안정

9) Lehman, A.F. et al., "Chronic Mental Patients: the Quality of Life Issu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39, 1982, pp.1271-1276.

10) 김영돈, 이길홍, & 민병근, "정신장애자의 생활만족지수에 관한 예비조사", 『신경정신의학』, 제27권, 5호, 1988, pp.842-851.

11) Baker, F. & J. Intagliata, "Quality of Life in the Evaluation of Community Support System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Vol.5, 1982, pp.69-79.

12) Yang, Ok Kyung, The Quality of Life Among Young Adults with Schizophrenia: Two-year Exploratory Study on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In a Normative Living Situation in the Community with Good Community Support Programs, Ph.D. Dissertation, UW-Madison, 1990.

성을 증명해 보이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측정도구를 기초로 영역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안정성을 증명하여 표준화된 삶의 만족 척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Ⅲ. 「삶의 만족 척도」 구성

1. 「삶의 만족 척도」의 내용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삶의 만족 척도」는 의식주와 같은 매우 기본적인 것부터 삶의 철학에 이르는 지극히 추상적인 것까지 10개 영역에 걸쳐 삶의 질, 삶의 만족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도구이다. 그리고 이 척도는 본 연구자가 고안한 것¹³⁾을 바탕으로 몇가지 영역을 새로이 첨가하고 질문의 형태를 수정,보완하며 만든 것이다.

본 척도는 총 3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가 스스로 답변을 기록하는 자기기록 방식이다. 각 항목은 “매우 불만족한다”(0)에서 “매우 만족한다”(4)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된다.

「삶의 만족 척도」는 (1) 의,식,주, (2) 친구, (3) 가족 및 친척, (4) 신체 및 정신 건강, (5) 일(직업), (6) 경제, (7) 대인관계, (8) 사회생활 및 여가활동, (9) 행복감, 그리고 (10) 자아감 및 삶의 철학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척도의 내용은 <표1>과 같다.

13) 양옥경, “정신장애자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20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92, p.139. 여기서 개발된 척도는 Cronbach's alpha 계수 0.9059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 주면서 한국의 사회문화 환경이 상대적으로 적절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표 1> 『삶의 만족 척도』 내용

영역	문항	내용
(1) 의식주영역	1.	현재살고 있는 곳에 대한 만족 수준
	2.	사는 곳에서의 사생활 보장정도
	3.	사는 곳에서의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공간
	4.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5.	일상적으로 입는 옷
(2) 친구관계영역	6.	사키는 친구의 수
	7.	사키는 친구와의 거리
	8.	친구와 보내는 시간
	9.	이성교제의 횟수와 방법
(3) 가족 및 친척 관계 영역	10.	가족과의 거리
	11.	가족들과의 관계
	12.	친척들과의 관계
(4) 신체 및 정신 건강 영역	13.	심리적 상태
	14.	현재 겪고있는 문제로 인한 곤란함
	15.	그 문제가 하고 싶은 일을 방해하는 정도
	16.	신체적 건강상태
(5) 일(직업) 영역	17.	정신적 건강상태
	18.	현재하고 있는 일의 종류
(6) 경제 영역	19.	현재하고 있는 일의 분량
	20.	한달수입
(7) 대인관계 영역	21.	하루생활비 지출정도
	22.	주변사람이나 직장동료와의 관계
(8) 사회생활 및 여가활동 영역	23.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24.	현재의 사회생활
	25.	하루를 보내는 방법
	26.	현재의 여가활동
(9) 행복감 영역	27.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보내는 방법
	28.	현재의 일반적인 삶
	29.	현재의 행복감
(10) 자율성 및 자아감 영역	30.	자신의 삶에서 얻는 기쁨
	31.	원하는 만큼의 자유
	32.	자신의 가치에 대한 느낌
	33.	자신에 대한 만족

2. 「삶의 만족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1) 신뢰도 (Reliability)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측정도구를 반복하여 적용했을 때 측정된 값이 일관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크게 동질성과 안정성을 지칭한다¹⁴⁾. 측정도구의 동질성(homogeneity)을 측정하는 것을 내적 일관성 신뢰도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검사라고 하며, 이것을 측정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coefficient alpha¹⁵⁾, Cronbach의 방법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척도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일컬어 검사-재검사법(test-retest method)이라 한다. 이는 단순히 같은 조사지를 같은 응답자에게 2번에 걸쳐 조사하는 것이다. 단, 신뢰도 측정을 위한 이와같은 방법들은 조사지에 자신이 기입하는 도구를 사용했을 때이다.

이에 자기기입 방식의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울 및 경인지역에 있는 남녀 대학생 120명을 일주일 간격으로 2회 실시하였다¹⁶⁾. 회수된 설문지중 2차 조사 당시 중간에 응답을 포기한 1명과 1차와 2차 조사때의 응답자가 일치하지 않는 1쌍을 제외한 분석사례는 총 118사례였다.

검사-재검사(test-retest)의 방법으로 측정된 33개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1차 검사때 Cronbach's alpha 계수 0.9143, 2차 검사때 Cronbach's alpha 계수 0.9321로 매우 높았으며 검사-재검사 간의 상관계수도 0.9557로

14) Carmines, Edward G. & R.A. Zeller, Reliability and Validity Assessment, Sage, #17, Beverly Hill, 1979, p.12.

15) Rubin, Allen & E. Babbie,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89, pp.144-146.

16) 김경동, 이온죽은 면접, 질문지, 심리검사 등은 2번 정도 반복검사하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사회조사연구방법』, 박영사, 1994, p.412), Rubin & Babbie는 검사와 재검사 사이의 적합한 기간은 알려진 것이 없으며 다만 응답자가 검사때의 답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길어야 하며 동시에 응답자가 자연히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만큼 짧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앞글, 1989, p.145).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¹⁷⁾.

2) 타당도 (Validity)

측정도구의 타당도란 연구자가 측정하려고 의도하는 것을 어느정도 충실히 측정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¹⁸⁾ 크게 개념타당도와 실험타당도 (empirical validity)로 나눌 수 있다¹⁹⁾.

(1) 개념타당도

개념타당도에는 액면타당도(face validity)와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가 포함된다. 액면타당도란 측정도구가 과연 어느 정도 그것이 측정한다고 생각하는 바의 행위, 속성 등을 제대로 측정하는 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때는 주로 개념규정, 측정, 또는 관찰의 절차, 관찰 및 측정하려는 속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도리밖에 없다. 즉, 이는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²⁰⁾. 반면에 내용타당도는 측정도구로 측정하려는 행위나 속성의 내용이 정말 그 행위나 속성의 요소의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따라서 개념타당도는 척도에 있는 문항이 측정하려고 의도하는 전체 내용을 어느 만큼 대표하는가를 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포함된 영역들이 본 측정도구에 포괄적으로 총괄하여 구성되어진 것임을 <표1>의 척도내용 구성에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척도의 개념타당도는 높다고 판단된다.

(2) 실험타당도

개념타당도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이와같은 판단이

17) Rubin & Babbie는 두 조사 결과 간의 상관관계지수가 0.70이상이면 해당 도구가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글, 1989, p.145).

18) Camines & Zeller, 앞글, 1979, p.13.

19) Rubin & Babbie, 앞글, 1989, pp.146-148.

20) 김경동, 이은숙, 앞글, 1993, p.404.

정말 적합한가에 대한 실험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실험타당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에는 기준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와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 척도 개발이 IQ테스트 처럼 어떤 시험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측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타당도는 고려하지 않고 구인타당도만 보고자 한다. 이 구인타당도는 이론적 개념이 제대로 측정되는가를 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서 분석한다²¹⁾. 따라서 구인타당도는 계속되는 요인분석의 결과를 통해 판단하기로 한다.

3. 「삶의 만족 척도」 요인분석

많은 변인들 가운데 서로 관계가 높은 변인들끼리 묶어서 소수의 요인을 추출함으로써 각 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산발적이고 개별적인 정보를 요약 및 축소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 요인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10개 영역 33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념적 정의에 따른 영역별로 각 문항들이 잘 묶여지는가를 보면서 구인타당도를 증명하고, 둘째, 33문항이 묶여지는 영역을 하위척도로 하여 만족도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요인분석을 위하여는 서울 및 경인지역의 남녀 3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삶의 만족도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완성된 것은 277사례였다. 여기에 신뢰도 검증을 위해 사용된 대학생 표본 118개(1차 조사분)를 합한 총 395사례가 요인분석에 사용되었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것은 <표7>에 있다.

1) 요인분석의 전제조건 검증

요인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측정된 자료가 다음의 3가지 전제조건 - 동간척도나 비율척도 사용, 변인간 상호 직선적인 관계유지, 이원정상분포 -

21) Rubin & Babbie, 앞글, 1989, p.148.

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²²⁾.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자료가 이 전제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을 해보았다. 우선 첫째 조건은 척도가 33문항 모두 5점 동간척도로 측정되었으므로 만족시키고 있었다. 둘째와 셋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각 변인의 정상분포 여부를 확인하였다²³⁾. 정상분포가 아닌 변인은 정상분포로 전환시킨 후 전환된 값을 가지고 요인분석하여야 하므로 이 조건의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개별 변인의 값의 분포가 정상분포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에는 편포(skewness)와 용도(kurtosis)의 값이 0인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정상분포는 수학적 개념이어서 사회과학에서 얻은 자료가 완전한 정상분포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는 없고 다만 정상분포에 가까운 자료를 얻을 뿐인데 우리는 그 자료의 분포를 정상분포라고 가정하고 그 결과를 해석할 뿐이다.

본 연구자료의 정상분포 여부를 확인한 결과는 <부록표1>과 같다. 모든 변수들이 편포도와 용도에서 +/-1.500이하일 뿐만 아니라 편포도에서는 모든 변수가 +/-1.000이하로 거의 0에 가까우므로 사회과학에서의 정상분포의 허용범위에 안전하게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²⁴⁾.

따라서 본 연구대상의 자료는 요인분석의 전제조건 세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므로 요인분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22) 정대연, 『사회통계학』, 백산서당, 서울, 1992, p.666.

23) 둘째와 셋째 조건은 각 변인의 정상분포 여부로 충족되는데 이는 두 변인의 관계가 직선적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이원 정상분포이기 때문이다. 이원 정상분포란 두 변인간의 분포가 정상분포인 것을 말하는데, 변인 하나하나가 정상분포이면 두 변인간의 분포도 정상분포에 가깝게 하며, 그 결과 변인들간의 직선적 관계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한다.

24) 사회과학에서의 자료가 완전한 정상분포를 보이지 않을 때, 어느 범위까지의 편포도와 용도를 정상분포로 볼 것인가 그 범위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정대연에 따르면 편포도와 용도의 값이 +/-3.000보다 작으면 정상분포의 허용범위에 들어간다고 정의하고 있다 (정대연, 앞글, 1992, p.676).

2) 요인분석

요인분석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5가지 절차를 걸쳐 행해졌다²⁵⁾.

(1) 상관행렬

33개의 변인간의 상관행렬을 검토해보고 그 상관관계 여부를 알아본 결과 본 연구자료에서는 대부분의 변인사이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단, 지면관계상 33x33의 상관관계행렬도표는 생략하기로 한다.

(2) 추출할 요인 수의 결정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Kaiser의 기준(Kaiser's criterion)과 자갈테스트(Scree test)의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특정치(eigenvalue)가 1.000보다 큰 것만 요인으로 추출하는 Kaiser의 기준을 따르기로 한다. 그 이유는 특정치가 1.000보다 적다는 것은 그 요인의 설명력이 변인 하나의 설명력보다 적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요인분석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특히 변인의 수가 20-50개 사이일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이기도 하다²⁶⁾.

이에 척도의 33문항을 변인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주요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통해 측정치가 1.000보다 큰 요인의 수가 8개로 결정되었다²⁷⁾.

(3) 분석 방법 결정

요인분석 방법에는 least squared, maximum likelihood, alpha factoring, image analysis 등의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찰된 상관관

25) 황정규, 『요인분석의 논리적 구조와 적용』, 서울대 사범대학, 1988, pp.70-78. 정대연, 앞글, 1992, pp. 650-673.

26) 정대연, 앞글, 1992, pp.652-653.

27) Jae-On Kim & C.W.Mueller는 Factor Analysis: Statistical Methods and Practical Issues, #14, SAGE, Beverly Hills, 1978, p.21에서 특정치가 1.000이상인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손쉬운 방법으로 주요 요인분석을 소개하고 있다.

계를 산출해내는 best-fit을 찾고, 최극의 추정치를 갖는 모집단의 parameter를 찾는 maximum likelihood method를 선택하였다²⁸⁾.

(4) 요인부하치의 산출 및 유의도 수준

요인부하치의 절대값이 큰 변인을 각 요인의 주 구성변인으로 하고, 각 요인의 주 구성변인들의 속성에 기초하여 각 요인에 이름을 붙인다. 모든 변인은 모든 요인에 요인부하치를 갖고 있다. 다만 요인부하치의 값과 방향만 다를 뿐이다. 따라서 요인부하치의 값의 기준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냐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

요인부하치 값의 기준을 정하는데는 일반적으로 세가지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는 그중에서 적률상관관계 계수 유의도에 의한 계산법을 따르기로 하였다²⁹⁾. 요인부하치는 각 변인이 각 요인에 대해 갖는 상관관계 계수이기 때문에 상관관계 계수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 유의성이 다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위해 이미 표본의 수와 유의도 수준에 따른 적률 상관관계 계수의 유의도가 개발되어 있다.

따라서 표본의 크기가 395인 본 연구에서는 요인부하치의 절대값이 0.125만 되면 95%유의도 수준에서, 그리고 0.163만 되면 99%수준에서 의미 있는 요인부하치가 된다. 따라서 본 자료의 경우 0.125 이상 (95% 수준), 또는 0.163 이상(99% 수준)인 변인을 각 요인의 주 구성변인으로 하면 된다³⁰⁾. 그러므로 <표2>에서 보이는 바에 의하면 모든 변인이 0.25이상으로 각 요인의 구성변인이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 Kim & Mueller, 앞글, 1978, p.23.

29) 본 연구에서 채택한 방법 이외의 두가지 방법은 ① 어떤 수학적 근거없이 요인부하치의 절대값이 0.3000보다 큰 변인을 각 요인의 주 구성변인으로 하는 것과 ② Burt-Bank의 공식에 맞춘 방법이 있다. ①의 방법은 매우 주관적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표본의 수가 적어도 50이상일 경우에 적용된다. ②의 방법은 표본의 수, 변인의 수, 그리고 요인의 수 모두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공식과 계산방법 등 자세한 것은 정대연의 저서 p.645를 참조하기 바란다.

30) 정대연은 그의 저서 사회통계학, 1992, p.753에서 표본의 크기에 따른 요인부하치의 값을 정하는 도표를 소개하고 있다.

<표2> 최극추정법에 의한 요인분석 요인행렬

변인 문항번호	요인부하계수 (factor loading)								공통성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V	요인 V	요인 VI	요인 VII	요인 VIII	
S11	.9995	-.0071	-.0006	-.0006	.0003	-.0006	.0001	-.0003	.99900
S10	.7642	.0070	.0321	.0107	.0283	.1010	.0456	-.0631	.60231
S12	.4328	.2441	.1817	.0633	.0643	-.0364	.0503	-.0757	.29762
S30	.2024	.6941	-.1871	-.2496	-.1789	.0664	-.0665	.1211	.67559
S28	.2671	.6928	-.2619	-.0977	-.0998	.0429	-.0456	.0607	.52240
S29	.2963	.6709	-.1964	-.1845	-.1584	.0014	-.1617	.1762	.69282
S18	.1355	.6638	-.0702	-.0479	.0452	-.0736	.0071	-.2403	.55006
S13	.1714	.6448	-.2217	.0015	.2346	.1309	-.0855	-.0420	.48624
S17	.2109	.6364	-.2289	-.0693	.0325	.1161	-.1116	.0220	.57550
S25	.1350	.6309	-.0933	-.0073	.0393	-.0834	.2158	-.2647	.49462
S33	.2267	.6120	.0016	-.2566	-.2429	.0052	.0748	-.0802	.64700
S24	.1556	.6091	.0576	-.0932	-.0059	-.1655	-.1355	-.2019	.49376
S23	.2490	.5812	.3869	-.0959	.0188	-.1239	-.0933	-.0237	.19854
S19	.1645	.5783	-.0966	-.0455	.1442	-.1904	.0965	-.2354	.53143
S22	.1378	.5735	.3871	-.0080	.1035	-.1576	-.1014	-.0789	.58365
S27	.1844	.5080	-.1184	.0926	.0947	.1260	.4561	.1433	.56800
S15	.1944	.5052	-.0993	.1804	.3384	.1097	-.1553	-.0100	.58281
S21	.1387	.5003	.0303	.3312	-.0670	-.4496	.0160	.1720	.61665
S32	.2325	.4746	.1091	-.3316	-.3248	.0440	.1013	-.0595	.56282
S5	.2776	.4389	.1200	.2409	-.0819	-.0781	.0833	.1600	.38750
S20	.2434	.4366	-.0796	.3161	-.0340	-.3810	.0180	.0801	.50925
S31	.2093	.4297	-.1216	-.0557	-.0952	.0948	.0753	.0285	.27088
S14	.2186	.4154	-.2315	.2216	.3976	.1244	-.2043	.0151	.53861
S1	.2333	.3368	-.0138	.3297	-.3286	.2250	-.1434	-.0230	.45649
S9	.1705	.3285	-.0523	.0317	-.0470	-.0551	-.0026	.2293	.19854
S16	.1278	.3173	-.1591	.0909	.2310	.0163	-.1395	.0654	.22791
S4	.2084	.2685	.0813	.2454	-.0851	-.0449	.0158	.1428	.21226
S7	.2551	.4094	.5950	-.0760	.1194	.1400	-.0172	.0578	.62997
S6	.2453	.4444	.5627	-.0716	.0578	.0678	-.0267	.0591	.59079
S8	.2562	.3634	.4188	-.0075	.1700	.1945	.0343	.1691	.54989
S2	.3612	.2906	.0571	.4623	-.2627	.2633	-.0887	-.1662	.60573
S3	.2281	.2936	.1045	.4444	-.3208	.1596	-.0970	-.0958	.49363
S26	.0999	.5028	-.0342	.1456	.0769	.1387	.5147	.0053	.57530
특정치	9.9627	2.3342	1.9443	1.5562	1.5272	1.2265	1.1924	1.0500	20.792
변량율	30.2	7.1	5.9	4.7	4.6	3.7	3.6	3.2	63.0

그러나 이 방법은 요인구조의 중복현상을 두드러지게 보인다는데 그 제한점이 있다. <표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몇몇 변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변인이 요인Ⅱ에 높은 요인부하치를 갖고 집중적으로 묶여있으며 또한 요인Ⅱ의 구성변인이 요인Ⅰ,Ⅲ,Ⅴ,Ⅶ 등의 다른 요인의 구성변인으로도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 변인이 중복적으로 여러 요인의 주 구성변인이 되는 것을 최대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요인부하치의 기준을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는 과학적인 방법이 회전이다. 회전시킨 요인은 회전시키지 않은 요인보다 각 변인이 하나의 요인에만 높은 요인부하치를 가짐으로서 각 요인은 서로 다른 변인들로 구성되고, 그 결과 각 요인의 의미가 독립적이고, 독특하고, 또한 순수해지는 중복현상이 없는 단순구조(simple structure)의 수준을 높여준다.

(5) 요인의 회전방법 결정

요인을 회전시키는 방법에는 요인과 요인간의 각도를 90도로 유지시키면서 회전시키는 직각적 회전방법과 요인간의 각도를 반드시 90도로 유지시키지 않고 개별변인들을 고려하여 그들에 가장 가깝도록 회전시키는 사각적 회전방법의 두가지가 있다. 직각적 회전은 요인들간의 상관관계가 최소화되게 하는 방법이고, 사각적 회전은 요인들간의 상관관계가 최대화되게 하는 방법이다³¹⁾.

본 연구에서는 척도에 있는 문항 모두가 삶의 만족에 관한 것으로 서로간의 상관도가 매우 높게 나왔으므로 추출된 요인들간의 상관관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요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하는 사교회전(oblique rotation) 방법을 선택하였다. 회전은 회전전 특정치(eigenvalue)가 1.0이상인 요인수 8까지로 한정하였으며 이것은 총변량의 63.0%를 설명한다. 회전 후 나타난 요인구조를 보면 <표3>과 같다. 표에서는 변인들을 요인별로 정리한 후 요인부하계수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31) 정대연, 앞글, 1992, pp.657-662.

<표3> 사고회전 후 요인행렬

변인 문항번호	요인부하계수 (factor loading)								공통성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V	요인 V	요인 VI	요인 VII	요인 VIII	
S11	.9933	.2069	.2719	.3608	.1996	-.2174	.1692	-.0250	.99900
S10	.7714	.1576	.2544	.2938	.1705	-.1335	.1963	-.0542	.60231
S12	.4524	.1588	.3847	.2786	.1971	-.2600	.2455	-.2067	.29762
S30	.2136	.7986	.3244	.1989	.4270	-.3448	.4167	-.3004	.67559
S29	.2994	.7785	.3294	.3369	.4813	-.4335	.3550	-.2554	.69282
S28	.2785	.7185	.2742	.3674	.5255	-.4134	.4697	-.3275	.52240
S33	.2429	.6802	.3903	.3036	.2153	-.2851	.4097	-.4352	.64700
S32	.2477	.6234	.3947	.2546	.0325	-.1652	.3215	-.3473	.56282
S31	.2264	.4500	.2085	.2728	.2811	-.2270	.3772	-.1906	.27088
S7	.3077	.2285	.7888	.2609	.1717	-.1893	.2613	-.1651	.62997
S6	.2920	.2746	.7660	.2790	.1622	-.2548	.2566	-.2078	.59079
S23	.2772	.4218	.6889	.2866	.2729	-.4186	.2619	-.3997	.19854
S22	.1675	.3123	.6503	.2552	.3032	-.4252	.2418	-.4310	.58365
S8	.3093	.2033	.6433	.2372	.2459	-.1852	.3228	-.0271	.54989
S2	.3768	.1543	.2388	.7662	.2311	-.2638	.2592	-.0949	.60573
S3	.2406	.1515	.2294	.6974	.1456	-.3146	.2011	-.0766	.49363
S1	.2416	.2855	.1902	.6601	.2166	-.2732	.2132	-.0423	.45649
S14	.2343	.1864	.1768	.2548	.7236	-.2818	.2851	-.1370	.53861
S13	.1954	.4825	.2897	.2730	.6828	-.3009	.4514	-.3401	.48624
S17	.2313	.5340	.3006	.2370	.6776	-.3024	.4264	-.3065	.57550
S15	.2195	.2478	.3100	.2903	.6685	-.3176	.3396	-.2176	.58281
S16	.1356	.1939	.1313	.1337	.4706	-.2405	.1888	-.1032	.22791
S21	.1469	.2583	.2738	.3229	.2953	-.7806	.3012	-.2272	.61665
S20	.2458	.2440	.1895	.3349	.3355	-.6906	.3021	-.2444	.50925
S5	.3059	.2850	.3811	.4170	.2596	-.5149	.3889	-.1035	.38750
S4	.2251	.1582	.2406	.3423	.1769	-.3795	.2334	-.0076	.21226
S9	.1816	.3232	.1966	.1871	.2429	-.3406	.2453	-.0188	.19854
S26	.1624	.2729	.2730	.2672	.2794	-.2814	.7524	-.2158	.57530
S27	.2408	.3572	.2562	.2384	.3531	-.3252	.7413	-.1299	.56800
S25	.1625	.4372	.2916	.2689	.3793	-.3589	.5450	-.5772	.49462
S18	.1531	.4928	.3440	.2882	.4520	-.3635	.4179	-.5737	.55006
S19	.1804	.3932	.2838	.1675	.4266	-.3836	.4197	-.5715	.53143
S24	.1618	.4779	.4125	.2662	.3719	-.3890	.2456	-.5503	.49376
특정치	3.1641	7.9217	1.6257	1.2956	1.0748	.8043	.7779	.5346	17.199
변량을	9.6	24.0	4.9	3.9	3.3	2.4	2.4	1.6	52.1

사교회전의 방법으로 회전시킨 후 요인구조는 8개의 각 요인의 구성변인에 있어서 중복현상이 없으므로 단순구조의 수준이 높아졌으며 각 요인별로 명백하게 변인이 묶여있다. 이것은 사교회전 후 각 요인의 의미의 독자성이 높아졌음을 뜻한다.

3) 해석 및 결론

<표4>에서 보여 주는 8개 요인을 구성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인I	: S11, S10, S12
요인II	: S30, S29, S28, S33, S32, S31
요인III	: S7, S6, S23, S22, S8
요인IV	: S2, S3, S1
요인V	: S14, S13, S17, S15, S16
요인VI	: S21, S20, S5, S4, S9
요인VII	: S26, S27
요인VIII	: S25, S18, S19, S24

<표1>의 10개 영역이 8개 영역으로 축소되면서 각 영역에 묶이는 변인의 조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 의식주 영역은 주거의 영역이 의,식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구성되었으며, 친구관계 영역은 대인관계 영역과 합해졌음을 알 수 있다. 단, 이성교제 문항만이 친구관계에서 제외되었다. 가족 및 친척관계 영역과 신체 및 정신 건강 영역은 이론상의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일(직업)영역은 사회생활과 합해졌고, 그에 따라 사회생활 및 여가활동 영역은 이분되어 여가활동 영역이 독자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인관계 영역도 원래 구성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행복감 영역과 자율성 및 자아감 영역은 합해졌으며, 경제영역은 의식주에서 분리된 의,식과 합해졌고, 친구 및 대인관계 영역에서 제외되

었던 이성교제 변인이 이 영역에 합해졌다.

이상의 구성은 모두 적합하고 이론적으로 매우 타당한 구성이나 단 경제영역의 구성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경제영역에는 한달수입과 하루 생활비 지출정도에의 만족 여부와, 일상으로 먹는 음식과 입는 옷에 대한 만족 여부, 그리고 이성교제에의 만족여부가 묶여 있는데 수입 및 생활비 지출과 음식, 옷에 관한 항목은 개념상으로 볼 때 수입에 따라 의류와 식품부분에서의 지출정도에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는 정도가 서로 상관관계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과 이성교제는 이론상으로 볼 때 그 상관관계에 있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요인부하계수도 0.3406으로 0.300이상이지는 하지만 매우 낮은 점수이다. 이처럼 부적합한 요인구성을 하게 되는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응답자의 꽤 많은 수가 삶의 만족도 척도에 응답함에 있어 이 문항에만 답변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32개의 평균값을 대비하였는데 이와같은 통계상의 조작이 이 문항으로 하여금 부적절한 요인구성을 하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요인분석 결과 이성교제 문항인 S9변인을 제외하면 더욱 타당성이 있는 요인구성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S9을 제외한 요인 분석을 다시 한 그 결과는 <표4>와 같다.

<표4>를 보면 이성교제 변인을 제외한 요인분석에서 S9변인이 요인 VI에서 제외된 것 이외에는 요인구성상 별다른 큰 변화는 없다. 단 몇개의 변인이 동일 요인내에서 자리바꿈을 한 것 이외에는 <표3>에서와 동일한 변인들이 8개 요인에 묶여 있으며 요인부하치도 거의 변동이 없다.

<표4> 변인 S9를 제외한 사교회전 후 요인행렬(Maximum Likelihood, Oblique Rotation)

변인 문항번호	요인부하계수 (factor loading)								공통성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V	요인 V	요인 VI	요인 VII	요인 VIII	
S11	.9937	.2171	.2708	.3603	.1929	-.2340	.1585	-.0578	.9990
S10	.7714	.1640	.2539	.2946	.1669	-.1434	.1926	.0159	.6015
S12	.4498	.1678	.3803	.2783	.1833	-.2747	.2282	-.2396	.2978
S30	.1992	.8012	.3139	.2955	.4110	-.3497	.3800	-.3785	.6760
S29	.2857	.7639	.3180	.3384	.4624	-.4237	.3172	-.3615	.6655
S28	.2651	.7232	.2634	.3656	.5092	-.4221	.4342	-.4095	.6470
S33	.2314	.6947	.3829	.2961	.1939	-.3111	.3716	-.4665	.5610
S32	.2382	.6366	.3898	.2463	.0135	-.1885	.2890	-.3617	.5201
S31	.2181	.4656	.2044	.2651	.2739	-.2510	.3606	-.2153	.2772
S7	.3029	.2404	.7893	.2597	.1576	-.2109	.2426	-.2089	.6288
S6	.2862	.2838	.7646	.2799	.1454	-.2658	.2320	-.2593	.5897
S23	.2687	.4327	.6840	.2865	.2510	-.4308	.2238	-.4510	.4965
S22	.1602	.3246	.6459	.2548	.2823	-.4396	.2072	-.4721	.5462
S8	.3044	.2127	.6444	.2366	.2393	-.2010	.3146	-.0807	.4711
S2	.3734	.1758	.2371	.7581	.2223	-.3000	.2500	-.1102	.5914
S3	.2364	.1608	.2260	.7048	.1337	-.3313	.1892	-.1086	.5038
S1	.2354	.2997	.1867	.6615	.2108	-.2972	.2013	-.0668	.4606
S14	.2292	.1919	.1717	.2569	.7223	-.2911	.2706	-.2076	.5377
S17	.2211	.5447	.2936	.2332	.6712	-.3192	.3990	-.3716	.5876
S13	.1858	.4904	.2818	.2728	.6711	-.3175	.4239	-.4138	.5743
S15	.2130	.2555	.3047	.2904	.6611	-.3335	.3197	-.2872	.4846
S16	.1307	.1998	.1282	.1319	.4731	-.2460	.1763	-.1410	.2330
S21	.1360	.2584	.2659	.3210	.2793	-.8040	.2730	-.2872	.6508
S20	.2372	.2491	.1822	.3332	.3218	-.7025	.2777	-.2959	.5153
S5	.2974	.2885	.3751	.4177	.2465	-.5118	.3681	-.1787	.3744
S4	.2197	.1595	.2367	.3458	.1698	-.3771	.2233	-.0642	.2049
S26	.1551	.2866	.2683	.2670	.2634	-.2976	.7512	-.2801	.5790
S27	.2315	.3657	.2501	.2385	.3407	-.3344	.7344	-.2142	.5641
S19	.1729	.3971	.2734	.1679	.3997	-.3910	.3834	-.6419	.5103
S25	.1541	.4476	.2813	.2685	.3501	-.3762	.5144	-.6412	.5634
S18	.1438	.5061	.3350	.2862	.4277	-.3862	.3800	-.6224	.5302
S24	.1531	.4846	.4040	.2660	.3463	-.4008	.2019	-.5990	.4965
특정치	3.1344	7.8205	1.6242	1.2923	1.0700	.8160	.7760	.4923	17.026
변량을	9.8	24.4	5.1	4.0	3.3	2.5	2.4	1.5	53.0

4) 하위척도 구성

(1) 하위척도 구성

8개 요인으로 정해진 하위척도의 구성은 <표5>와 같다.

<표5> 「삶의 만족 척도」 하위척도 구성

하위척도	요 인	변 인
1. 가족 및 친척관계	요인 I	S11, S10, S12
2. 자아감 및 일반적 삶	요인 II	S30, S29, S28, S33, S32, S31
3. 친구 및 대인관계	요인 III	S7, S6, S23, S22, S8
4. 주거환경	요인 IV	S2, S3, S1
5. 신체 및 정신 건강	요인 V	S14, S13, S17, S15, S16
6. 의·식·경제정도	요인 VI	S21, S20, S5, S4
7. 여가활동	요인 VII	S26, S27
8. 직업 및 하루일과	요인 VIII	S25, S18, S19, S24

(2) 구인타당도

구인타당도는 앞서 설명한 바와같이 <표1>에서의 10개 영역과 <표5>에서의 8개 영역의 구성이 매우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매우 높다고 하겠다.

(3) 하위척도의 신뢰도

새로이 구성된 8개 하위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최저 0.7030 부터 최고 0.8492로 높은 편이다. 각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다음과 같다.

가족 및 친척관계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0.7462, 자아감 및 일반적 삶 척도의 계수는 0.8492, 친구 및 대인관계 척도의 계수는 0.8325, 주거환경 척도의 계수는 0.7441, 신체 및 정신 건강 척도의 계수는 0.7917, 의·식·경제정도 척도의 계수는 0.7030, 여가활동 척도의 계수는 0.7162, 마지막으로 직업 및 하루일과 척도의 계수는 0.7948이다.

5) 요인간 상관계수

각 요인간의 상관계수는 예상한대로 높게 나타났다. <표6>의 요인간 상관행렬계수를 보면, 요인IV와 요인VI이 0.4252로 가장 높고, 요인II와 요인VIII이 0.4178로 그 다음으로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제한적이거나 주거환경은 역시 의,식생활 및 경제정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직업 및 하루일과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자아감 및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의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요인I과 요인VIII, 요인IV와 요인VIII은 0.1500미만의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직업 및 하루일과에서의 만족도와 가족 및 친척관계 변인이나 주거환경변인에서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6> 사교회전 후 요인간 상관관계행렬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V	요인 V	요인 VI	요인 VII	요인 VIII
요인 I	1.0000							
요인 II	.2091	1.0000						
요인 III	.3318	.3171	1.0000					
요인 IV	.3763	.2815	.3070	1.0000				
요인 V	.2071	.3196	.1995	.2421	1.0000			
요인 VI	-.2325	-.3058	-.3186	-.4252	-.3616	1.0000		
요인 VII	.2357	.3654	.2833	.2972	.3394	-.3225	1.0000	
요인 VIII	-.0579	-.4178	-.3034	-.1277	-.2729	.3342	-.2526	1.0000

IV. 삶의 만족도 내용 분석

1. 분석대상

분석을 위한 표본은 서울 및 경인지역의 남녀였으며 연령제한은 없었다. 그러나 조사원들이 여자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연령 및 성별에 있거나 교육정도 및 직업 등에 있어서 자신들과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로 편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³²⁾. 분석대상자는 총 395명으로 <표7>에 서 보듯이 분석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39.3%, 여자 60.7%로 여자가 약간 많은 비중을 보였으며, 연령층은 최저 18세 부터 최고 62세 까지이고 평균 26.7세로 남녀 비슷하다. 분석대상자들 중 학생수가 많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교육정도, 결혼상태, 직업 등에 있어서도 학생수준에 준하여 치우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직업에서 무직은 대부분 가정주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종교에서 기타는 천도교와 원불교이다.

<표7> 분석대상자 분포도

N=395

변 인		총계	남자	여자
성 별		394	155(39.3%)	239(60.7%)
나 이	평 균	26.78 (sd=8.92)	27.69 (sd=7.73)	26.10 (sd=9.46)
교 육	무 학	1 (0.3%)	.	1 (0.4%)
	국 졸	4 (1.0%)	1 (0.6%)	3 (1.3%)
	중 졸	5 (1.3%)	1 (0.6%)	4 (1.7%)
	고 졸	48 (12.2%)	7 (4.5%)	40 (16.7%)
정 도	대 재	247 (62.5%)	103 (66.5%)	144 (60.3%)
	대 졸	63 (15.9%)	24 (15.5%)	39 (16.3%)
	대학원 이상	26 (6.6%)	17 (12.3%)	7 (2.9%)
	무 응 답	1 (0.3%)	.	1 (0.4%)
결 혼 상	미 혼	295 (74.9%)	11 (71.6%)	184 (77.0%)
	기 혼	91 (23.1%)	42 (27.1%)	48 (20.1%)
	별 거	.	.	.
	이 혼	3 (0.8%)	1 (0.6%)	2 (0.8%)

32) 이 표본추출법은 엄밀하게 볼 때 우발적표집법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는 표집방법이다. 이는 비확률표집 방법으로 확률표집통계분석 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다소 제한적이므로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태	사	별	4 (1.0%)	.	4 (1.7%)				
	재	혼	1 (0.3%)	1 (0.6%)	.				
	무	응	답	1 (0.3%)	1 (0.4%)				
직	무	직	36 (9.1%)	2 (1.3%)	33 (13.8%)				
	학	생	235 (59.5%)	102 (65.8%)	133 (55.6%)				
	판	매	직	14 (3.5%)	5 (3.2%)	9 (3.8%)			
	전	문	직	50 (12.7%)	33 (21.3%)	17 (7.1%)			
업	행	정	사	무	직	42 (10.6%)	11 (7.1%)	31 (13.0%)	
	서	어	비	스	직	3 (0.8%)	.	3 (1.3%)	
	생	산	직	근	로	자	14 (3.5%)	2 (1.3%)	12 (5.0%)
	무	응	답	1 (0.3%)	.	1 (0.4%)			
종	없	음	120 (30.4%)	60 (38.7%)	60 (25.1%)				
	기	독	교	196 (49.6%)	63 (40.6%)	133 (55.6%)			
	천	주	교	38 (9.6%)	16 (10.3%)	22 (9.2%)			
	불	교	36 (9.1%)	14 (9.0%)	21 (8.0%)				
	유	교	1 (0.3%)	.	1 (0.4%)				
	교	기	타	2 (0.5%)	2 (1.3%)	.			
무		응	답	2 (0.5%)	2 (0.8%)				
자		가	274 (69.4%)	96 (61.9%)	177 (74.1%)				
주	전	세	54 (13.7%)	29 (18.7%)	25 (10.5%)				
	월	세	10 (2.5%)	3 (1.9%)	7 (3.0%)				
	자	취	26 (6.6%)	17 (11.0%)	9 (3.8%)				
	기	숙	사	25 (6.3%)	8 (5.2%)	17 (7.1%)			
	무	응	답	6 (1.5%)	2 (1.3%)	4 (1.7%)			
동	평	균	3.79 (sd=1.48)	3.67 (sd=1.55)	3.85 (sd=1.44)				
월	50미만	126 (31.9%)	58 (37.4%)	68 (28.5%)					
	50이상-100미만	57 (14.4%)	11 (7.1%)	46 (19.2%)					
	100이상-150미만	59 (14.9%)	26 (16.8%)	33 (13.8%)					
	150이상-200미만	49 (12.4%)	15 (9.7%)	34 (14.2%)					
	200이상-250미만	37 (9.4%)	9 (5.8%)	27 (11.3%)					
	250이상	32 (8.1%)	20 (12.9%)	12 (5.0%)					
	무	응	답	35 (8.9%)	16 (10.3%)	19 (7.9%)			

* 백분율(%)의 총계가 100%가 되지않는 것은 반올림 때문임.

2. 분석방법

일반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어떤 상관변인들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방법이 활용되었다.

상관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각 하위척도별로 t-test와 ANOVA를 활용하여 분석하기 위해 두 분석방법이 갖는 3가지 기초전제³³⁾ - 정상분포, 동일변량, 측정치의 연속성 - 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자료가 정상분포를 띄고 있는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에서 얻어진 정상분포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이 전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요인 분석에 의해 새로이 구성된 하위척도의 정상분포를 편포도값과 용도값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부록표2>에서 보듯이 8개 하위척도가 모두 편포도와 용도에서 +/-1.000이하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는 각 하위척도가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집단내 변량이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조건에 관해 ANOVA는 이 전제에 별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 특히 표본의 사례수가 각 집단에서 동일하면 집단간 변량의 차이가 Type I error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가 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다³⁴⁾. 그러나 표본의 사례수가 집단마다 다른 경우 어느 집단이 사례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 비해 큰 변량을 가지게 되었다면 실제로 Type I error를 범할 확률은 사전에 설정한 alpha 수준보다 적어진다. 반면에 어느집단이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 비해 적은 변량을 가지게 되었다면 실제로 Type I error를 범할 확률은 사전에 설정한 alpha 수준보다 커진다. 그러므로, 사례수가 다를 때는 Bartlett검증을 사용하거나 Scheffe's test를 통한 사후검증을 사용하여 동일변량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Scheffe's test는 ANOVA 결과 의미있는 F값을 얻었으며 각 집단의

33) Kerlinger, F.N., Foundation of Behavioral Research, 2nd Ed., New York: Holt, Reinhart & Winston, 1973, pp.226-288.

34) 정대연, 앞글, 1992, p.383.

사례수가 동일하지 않을 때 평균치의 개별비교에 적합한 방법이다³⁵⁾.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표7>에서 보듯이 변인의 각 항목마다 사례수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변량의 전제조건을 맞추지 못하므로 Bartlett 검증에서 동일변량을 증명해 준 것이나 Scheffe's test를 통해 사후검증한 결과만이 보고의 대상이 된다.

셋째, 측정치의 연속성은 동간척도나 비율척도에 의하여 얻어진 자료에 한해서만 변인들의 값들 사이의 연속성과 동간격성을 보장해 준다. 따라서 위 분석방법은 동간/비율 척도들에 의해 측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본 자료는 동간척도에 의하여 얻어졌으므로 이 조건도 만족시킨다.

3. 상관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 분석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직업, 종교, 주거형태, 동거하는 가족수, 월평균소득이며, 삶의 만족도는 <표6>에서 보이는 하위척도별로 분석하였다.

1) 성별

성별에 따른 하위척도별 삶의 만족도를 t-test로 분석해 본 결과 <표8>에서 보여주듯이 오직 한개 하위척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33개 문항 중 오직 3개 문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삶의 만족도 여부를 가름하는데 성별이 뚜렷한 직접적인 영향

35) 이 검사는 각 집단의 평균치를 개별비교할 경우 F검증시 사전에 설정한 alpha 수준 이상의 Type I error를 범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비교에서 이 error를 범할 확률은 사전에 설정한 alpha 수준보다 오히려 상당히 적어진다. 이는 이 검사가 다른 검사에 비해 통계적 검증이 더욱 엄격함을 의미한다.(정대연, 앞글, 1992 p.401)

을 미치지 못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³⁶⁾.

하나의 하위척도인 가족관계나 친척관계에 있어서만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자에게 있어서는 가족이나 친척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만족을 제공하는 존재로 있는 반면에 여자에게는 그들 자신이 가족이나 친척을 만족시켜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여자는 남자보다 집안의 대소사를 둘러싼 가족 및 친척들과의 관계에 더 많이 관련되어 있고 그만큼 그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들의 만족정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른 영역에서도 통계적인 의미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만족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 만족도 4.0이 만점인 척도에서 2.5 수준의 만족도는 약간만족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남녀 모두 전반적으로 약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신체 및 정신 건강의 영역과 여가의 영역이 중간점수인 2.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보아 건강추구와 여가활동에 대해 갖고 있는 욕구에 비해 아직까지 다른 영역에서 만큼 충족되지 못하여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주거환경과 의,식,경제정도 등에 있어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Bradburn, Norma,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Aldine, 1969; Campbell, et al., 앞글, 1976; Robinson & Shaver, Measures of Social Psychological Studies, Ann Arbo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 of Michigan, 1973, pp.17-19; Clemente & Sauer, "Life Satisfaction in the United States", Social Forces, No.54, 1976, pp.621-631.

<표8> 성별에 따른 하위척도별 삶의 만족도: t-test

하위척도	집단	N	평균(sd)	t값	p값
가족 및 친척관계	남	155	2.774(0.82)	4.01	0.000
	여	239	2.432(0.84)		
자아감 및 일반적 삶	남	155	2.579(0.73)	1.77	0.077
	여	239	2.444(0.76)		
친구 및 대인관계	남	155	2.656(0.81)	0.55	0.581
	여	239	2.610(0.77)		
주거환경	남	155	2.437(0.86)	-0.16	0.871
	여	239	2.452(1.00)		
신체 및 정신 건강	남	155	1.901(0.79)	1.45	0.147
	여	239	1.782(0.80)		
의·식·경제정도	남	155	2.250(0.74)	-0.49	0.626
	여	239	2.288(0.76)		
여가활동	남	155	1.958(1.05)	0.82	0.414
	여	239	1.870(1.03)		
직업 및 하루일과	남	155	2.055(0.83)	0.62	0.536
	여	239	2.002(0.82)		

2) 연령

연령에 따른 하위척도별 삶의 만족도를 ANOVA로 분석하기 위해 18세 부터 62세 까지 넓게 분산되어 있는 연령을 4개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각 집단마다의 사례수와 평균값은 <표9>와 같다. 대학생이 많았으므로 역시 20대가 전체의 77%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9> 연령에 따른 하위척도별 삶의 만족도 : 평균

구 분	N(*)	가족 및	자아감 및	친구 및	주거환경	신체 및	의,식	여가활동	직업 및
		친척관계	일반적 삶	대인관계		정신 건강	경제정도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20대	305 (77%)	2.4995 (0.8749)	2.4399 (0.7503)	2.6472 (0.8045)	2.4294 (0.9417)	1.7685 (0.7501)	2.2336 (0.7281)	1.8607 (1.0136)	1.9426 (0.8093)
30대	44 (11%)	2.7576 (0.5900)	2.6439 (0.6304)	2.5227 (0.6313)	2.1894 (0.7275)	1.8455 (0.8462)	2.2045 (0.6609)	1.7614 (1.0086)	2.2557 (0.7283)
40대	28 (7%)	2.9196 (0.6326)	2.7976 (0.6825)	2.6143 (0.7342)	2.6667 (1.0201)	2.3714 (0.7712)	2.5179 (0.7069)	2.4107 (1.0546)	2.4375 (0.7442)
50대 이상	17 (4%)	2.7059 (1.0130)	2.5784 (0.9300)	2.6118 (0.9784)	3.0196 (1.1147)	2.0941 (1.1382)	2.7647 (1.1675)	2.1471 (1.1560)	2.2206 (1.0693)
총 계	394	2.5668 (0.8456)	2.4941 (0.7468)	2.6294 (0.7886)	2.4442 (0.9433)	1.8340 (0.7963)	2.2735 (0.7511)	1.9010 (1.0303)	2.0247 (0.8222)

무응답=1명

이를 ANOVA로 분석한 결과, <표10>에서 보여주듯이 5개 하위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그 5개 척도는 가족 및 친척관계, 주거환경, 신체 및 정신 건강, 의,식,경제정도, 그리고 직업 및 하루일과이다. 이중에서 Bartlett test에서 사례수가 다른 변수의 동변량성이 검증된 것은 가족 및 친척관계 척도와 의식경제정도 척도의 2개 뿐이다. Scheffe's test에 의해 사후검증 한 결과 주거환경척도에서는 50대가 30대 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 및 정신 건강, 의,식,경제정도, 그리고 직업 및 하루일과의 3개 척도에서는 40대가 20대보다 더 만족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30대 이하의 젊은 층보다 좀더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40-50대가 주거, 직업, 경제정도 등에 만족하고 있으며 따라서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있어서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연령에 따른 하위척도별 삶의 만족도 : ANOVA

		df	SS	MS	F값	P값
가관 족 및 친 척계	집단간	3	6.7410	2.2470	3.1879	0.0238
	집단내	390	274.8879	0.7048		
	총 계	393	281.6289			
주거 환경	집단간	3	9.9471	3.3157	3.8059	0.0104
	집단내	390	339.7689	0.8712		
	총 계	393	349.7160			
신정 체신 및 건강	집단간	3	10.5508	3.5169	5.7477	0.0007
	집단내	390	238.6335	0.6119		
	총 계	393	249.1843			
의경 제 식 제 도	집단간	3	6.4683	2.1561	3.9065	0.0090
	집단내	390	215.2520	0.5519		
	총 계	393	221.7203			
직하 업 루 일 및 과	집단간	3	9.8258	3.2753	4.9922	0.0021
	집단내	390	255.8704	0.6561		
	총 계	393	265.6962			

3) 교육정도

교육정도에 따른 하위척도별 삶의 만족도를 ANOVA로 분석하기 위해 8개 항목으로 나뉘었던 것을 5개 집단으로 재조정하였으며 각 집단마다의 사례수와 평균값은 <표11>과 같다. 대학생이 많았으므로 역시 대학교 재학의 학력이 63%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1> 교육정도에 따른 하위척도별 삶의 만족도 : 평균

구분	N(%)	가족 및 친척관계	자아감 및 일반적 삶	친구 및 대인관계	주거환경	신체 및 정신건강	의, 식 경제정도	여가활동	직업 및 하루일과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중학교 졸업 이하	10 (3%)	2.1000 (0.7706)	2.0833 (0.9271)	2.4000 (0.8327)	2.1333 (0.9189)	1.6400 (0.9834)	1.8250 (1.2250)	1.6500 (0.8835)	1.9250 (0.7910)
고등학교 졸업	48 (12%)	2.5764 (0.8301)	2.2882 (0.7617)	2.5750 (0.7867)	2.2083 (0.9394)	1.8667 (0.7886)	2.2760 (0.6885)	1.7604 (1.0365)	2.1198 (0.8219)
대학교 재학	247 (62%)	2.5371 (0.8692)	2.4710 (0.7261)	2.6194 (0.8149)	2.4534 (0.9247)	1.7709 (0.7536)	2.2186 (0.7492)	1.8826 (1.0391)	1.9170 (0.8082)
대학교 졸업	63 (16%)	2.5455 (0.7451)	2.6587 (0.7611)	2.6794 (0.7260)	2.5926 (1.0667)	1.9429 (0.8889)	2.4762 (0.6952)	2.0952 (1.0233)	2.1508 (0.7836)
대학원 이상	26 (7%)	2.8205 (0.8755)	2.8526 (0.6224)	2.7923 (0.6776)	2.5513 (0.7598)	2.1846 (0.8293)	2.4712 (0.6794)	1.9615 (0.9992)	2.6056 (0.8099)
총 계	394	2.5668 (0.8465)	2.4941 (0.7468)	2.6294 (0.7886)	2.4442 (0.9433)	1.8340 (0.7963)	2.2735 (0.7511)	1.9010 (1.0303)	2.0247 (0.8222)

무응답=1명

이를 ANOVA로 분석한 결과 <표12>에서 보여주듯이 2개 하위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그 2개 척도는 자아감 및 일반적 삶 과 직업 및 하루일과이다. Bartlett test에 의한 동변량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Scheffe's test에 의한 사후검증 결과 대학원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그 이하의 학력소지자 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아감 및 일반적 삶 척도에서는 고졸학력소지자 보다 그리고 직업 및 하루일과척도에서는 대학교재학생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미도는 떨어지지만 전반적으로 고학력 소유자가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2> 교육정도에 따른 하위척도별 삶의 만족도 : ANOVA

		df	SS	MS	F값	P값
자일 아반 감적 및삶	집단간	4	8.9027	2.2257	4.1168	0.0028
	집단내	369	210.3057	0.5406		
	총 계	393	219.2084			
직하 업부 일 및과	집단간	4	13.1786	3.2946	5.0754	0.0005
	집단내	369	252.5176	0.6491		
	총 계	393	265.6962			

4) 결혼상태

결혼상태에 따른 하위척도별 삶의 만족도를 ANOVA로 분석하기 위해 6개 항목을 3개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각 집단마다의 사례수와 평균값은 <표13>과 같다. 대학생이 많았으므로 역시 미혼이 74.9%%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3> 결혼상태에 따른 하위척도별 삶의 만족도 : 평균

구분	N(%)	가족 및 친척관계	자아감 및 일반적 삶	친구 및 대인관계	주거환경	신체 및 정신 건강	의, 식, 경제정도	여가활동	직업 및 하루일과
구분	N(%)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미혼	295 (75%)	2.4927 (0.8775)	2.4271 (0.7482)	2.6346 (0.8036)	2.4226 (0.9250)	1.7607 (0.7486)	2.2271 (0.7191)	1.8697 (1.0214)	1.9373 (0.0467)
기혼	91 (29%)	2.8388 (0.6599)	2.7418 (0.6603)	2.6088 (0.7136)	2.5421 (0.9771)	2.0923 (0.8740)	2.4753 (0.7407)	2.0495 (1.0647)	2.3049 (0.0841)
기타	8 (2%)	2.2593 (0.9246)	2.2222 (0.9965)	2.6000 (1.0630)	2.2963 (1.2522)	1.4889 (1.0301)	1.8611 (1.3869)	1.6667 (1.1180)	1.9722 (0.3643)
총계	394	2.5671 (0.8455)	2.4949 (0.7461)	2.6278 (0.7882)	2.4473 (0.9441)	1.8309 (0.7977)	2.2759 (0.7518)	1.9063 (1.0344)	2.0228 (0.8221)

무응답=1명

이를 ANOVA로 분석한 결과 <표14>에서 보여주듯이 5개 하위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그 5개 척도는 가족 및 친척관계, 자아감 및 일반적 삶, 신체 및 정신 건강, 의식,경제정도, 그리고 직업 및 하루일과이다. 이중에서 가족 및 친척관계와 의식,경제정도 척도에서만 Bartlett test에서 동변량성이 입증되었다. Scheffe's test에 의한 사후검증 결과 5개 척도 모두에서 기혼이 미혼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정신적으로 더 행복하다는 다른 연구결과와 동일하다³⁷⁾.

<표14> 결혼상태에 따른 하위척도별 삶의 만족도 : ANOVA

		df	SS	MS	F값	P값
가족 친척 관계 및 계	집단간	2	9.2069	4.6034	6.6238	0.0015
	집단내	392	272.4320	0.6950		
	총 계	394	281.6388			
자 아 감 및 일 반 적 삶	집단간	2	7.5699	3.7850	7.0068	0.0010
	집단내	392	211.7533	0.5402		
	총 계	394	219.3232			
신 체 정 신 健 康 및 강	집단간	2	8.7258	4.3629	7.0679	0.0010
	집단내	392	241.9774	0.6173		
	총 계	394	250.7032			
의 경 제 정 도 및 식	집단간	2	5.8677	2.9339	5.3047	0.0053
	집단내	392	216.8038	0.5531		
	총 계	394	222.6715			
직 업 하 루 일 과 및 과	집단간	2	9.4243	4.7121	7.1910	0.0009
	집단내	392	256.8707	0.6553		
	총 계	394	266.2949			

37) Bloom, Bernard L., Community Mental Health: A General Introduction,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Monterey, Calif., 1984, pp.223-227; Robinson, & Sauer, 앞글, 1976, pp.17-19; Gurin, Veroff, & Feld, Americans View Their Mental Health, N.Y.:Basic, 1960, pp.230-238.

5) 직업

직업에 따른 하위척도별 삶의 만족도를 ANOVA로 분석하기 위해 살펴본 6개 집단의 사례수와 평균값은 <표15>와 같다. 역시 대학생이 많았으므로 '학생'이 65.0%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ANOVA로 분석한 결과 3개 하위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나 Bartlett test 결과 동변량성을 검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Scheffe's test에 의한 사후검증 결과 단 하나의 척도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3개 하위척도에서 보인 유의미한 결과는 각 집단간 사례수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전체조건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유의미한 결과로 채택하지 않았다.

<표15> 직업에 따른 하위척도별 삶의 만족도 : 평균

구분	N(%)	가족 및 친척관계	자아감 및 일한적 삶	친구 및 대인관계	주거환경	신체 및 정신 건강	의. 식, 경제정도	여가활동	직업 및 하루일과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무직	36 (9%)	2.7130 (0.7691)	2.6991 (0.7494)	2.6667 (0.7664)	2.8704 (0.8702)	2.0111 (0.9936)	2.3194 (0.9154)	2.1528 (1.1390)	2.1042 (0.8872)
학생	256 (65%)	2.5489 (0.8655)	2.4752 (0.7201)	2.6196 (0.8117)	2.4440 (0.9276)	1.7838 (0.7492)	2.2277 (0.7394)	1.8979 (1.0358)	1.9181 (0.8016)
판매직	17 (4%)	2.6275 (0.8391)	2.0392 (0.7627)	2.3412 (0.6472)	2.1373 (0.7823)	1.8568 (0.8596)	2.0882 (0.8429)	1.3529 (0.8797)	1.9559 (0.7248)
전문직	50 (13%)	2.7533 (0.7934)	2.7533 (0.6566)	2.7680 (0.6741)	2.5133 (0.9214)	1.9360 (0.8773)	2.4400 (0.6936)	1.9600 (1.0194)	2.3100 (0.8339)
행정 사무직	42 (11%)	2.4048 (0.9501)	2.4206 (0.8736)	2.7190 (0.8276)	2.2063 (1.1115)	1.7906 (0.7714)	2.4167 (0.6455)	1.9048 (1.0075)	2.1667 (0.8295)
생산직 근로자	14 (4%)	2.2381 (0.8516)	2.1310 (0.6768)	2.2857 (0.7912)	2.1906 (0.7922)	1.9571 (0.7240)	2.1250 (0.8189)	1.7500 (0.7783)	2.2500 (0.8086)
총계	394	2.5668 (0.8465)	2.4941 (0.7468)	2.6294 (0.7886)	2.4442 (0.9433)	1.8340 (0.7963)	2.2735 (0.7511)	1.9010 (1.0303)	2.0247 (0.8222)

무응답=1명

6) 종교

종교에 따른 하위척도별 삶의 만족도를 ANOVA로 분석하기 위해 6개 항목을 5개 집단으로 재조정하여 본 각 집단의 사례수와 평균값은 <표 16>와 같다. 이를 ANOVA로 분석한 결과 어떤 하위척도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표16> 종교에 따른 하위척도별 삶의 만족도 : 평균

구분	N(%)	가족 및 친척관계 평균(SD)	자아감 및 일반적 삶 평균(SD)	친구 및 대인관계 평균(SD)	주거환경 평균(SD)	신체 및 정신건강 평균(SD)	의, 식, 경제정도 평균(SD)	여가활동 평균(SD)	직업 및 하루일과 평균(SD)
무교	120 (31%)	2.5500 (0.9650)	2.4250 (0.6753)	2.6867 (0.7978)	2.5056 (0.9816)	1.8250 (0.7531)	2.2500 (0.7594)	1.8125 (1.0043)	1.9854 (0.8252)
기독교	196 (50%)	2.5714 (0.7713)	2.5740 (0.7691)	2.6418 (0.7879)	2.4388 (0.9215)	1.8520 (0.8388)	2.2997 (0.7380)	1.9541 (0.9989)	2.0408 (0.8248)
천주교	38 (10%)	2.5000 (0.8828)	2.3947 (0.7274)	2.4000 (0.8161)	2.3070 (1.0056)	1.7684 (0.7286)	2.2303 (0.7965)	1.7500 (1.2011)	1.9671 (0.8585)
불교	36 (9%)	2.6667 (0.7684)	2.3704 (0.7571)	2.5722 (0.6881)	2.3981 (0.8938)	1.7722 (0.6881)	2.2222 (0.7216)	2.0139 (1.0789)	2.0972 (0.6873)
기타	3 (1%)	2.6000 (1.0904)	2.7333 (1.3260)	2.8000 (1.0100)	2.8000 (0.9603)	2.0400 (1.5192)	2.7000 (1.1096)	2.7000 (1.3038)	2.1000 (1.4328)
총계	393	2.5671 (0.8455)	2.4949 (0.7461)	2.6278 (0.7882)	2.4473 (0.9441)	1.8309 (0.7977)	2.2759 (0.7518)	1.9063 (1.0344)	2.0228 (0.8221)

무응답=2명

7) 주거형태

주거형태에 따른 하위척도별 삶의 만족도를 ANOVA로 분석하기 위해 살펴본 5개 집단의 사례수와 평균값은 <표17>과 같다.

<표17> 주거형태에 따른 하위척도별 삶의 만족도 : 평균

구분	N(%)	가족 및 친척관계	자아감 및 일반적 삶	친구 및 대인관계	주거환경	신체 및 정신 건강	의식, 경제정도	여가활동	직업 및 하루일과
자 가	274 (70%)	2.5523 (0.8559)	2.4933 (0.7548)	2.6394 (0.7931)	2.6046 (0.9057)	1.8348 (0.8108)	2.3549 (0.7342)	1.9653 (1.0455)	2.0073 (0.8295)
전 세	54 (14%)	2.6914 (0.7491)	2.5525 (0.7640)	2.6519 (0.7363)	2.1605 (0.9422)	1.8889 (0.7767)	2.2315 (0.7490)	1.7315 (1.0174)	2.2037 (0.8356)
월 세	10 (2%)	2.3333 (0.8889)	2.3500 (0.9508)	2.6000 (1.0285)	1.7000 (0.7445)	2.0000 (0.9381)	1.8000 (0.8724)	1.9000 (0.8433)	1.9250 (0.9793)
자 취	26 (7%)	2.6538 (0.9116)	2.4295 (0.5089)	2.6923 (0.6356)	2.3718 (0.8911)	1.7077 (0.7720)	2.0096 (0.5809)	1.7115 (1.0786)	1.9231 (0.7341)
기 숙 사	25 (6%)	2.4400 (0.9365)	2.5267 (0.6449)	2.4960 (0.8429)	1.7333 (0.9428)	1.7840 (0.6108)	1.9200 (0.8092)	1.7600 (0.9367)	1.9600 (0.6381)
총 계	389	2.5656 (0.8505)	2.4957 (0.7389)	2.6344 (0.7828)	2.4482 (0.9455)	1.8344 (0.7932)	2.2725 (0.7478)	1.9010 (1.0329)	2.0238 (0.8179)

무응답=6명

이를 ANOVA로 분석한 결과 <표18>에서 보여주듯이 주거환경 1개 하위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Scheffe's test에 의한 사후검증 결과,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나 전세사는 사람들 보다는 자기집을 소유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주거환경 영역에 있어서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18> 주거형태에 따른 하위척도별 삶의 만족도 : ANOVA

		df	SS	MS	F값	P값
주거환경	집단간	4	29.6990	7.4249	8.9894	0.0000
	집단내	384	317.1714	0.8260		
	총 계	388	346.8712			

8) 동거가족수

함께 동거하는 가족수에 따른 하위척도별 삶의 만족도를 ANOVA로 분석하기 위해 0명 (동거인 없이 혼자 사는 사람) 부터 9명 까지 평균 4명

의 동거인과 함께 생활하는 동거가족의 수를 4개 집단 - 집단 1은 동거인 0-2명, 집단 2는 동거인 3-4명, 집단 3은 동거인 5-6명, 집단 4는 동거인 7-9명 -으로 나누었으며 각 집단마다의 사례수와 평균값은 <표19>와 같다. 이를 ANOVA로 분석한 결과 어떤 변수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표19> 동거가족수에 따른 하위척도별 삶의 만족도 : 평균

구 분	N(%)	가족 및 친척관계	자아감 및 일의의미	친구 및 대인관계	주거환경	신체 및 정신 건강	의, 식, 경제정도	여가활동	직업 및 하루일과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0 - 2 인	58 (15%)	2.6034 (0.8993)	2.5374 (0.7154)	2.7483 (0.7961)	2.5460 (0.8801)	1.6724 (0.7675)	2.1207 (0.8262)	1.8966 (1.0033)	2.0862 (0.8239)
3 - 4 인	193 (49%)	2.5043 (0.8059)	2.4853 (0.7880)	2.6010 (0.7224)	2.4853 (0.9434)	1.9026 (0.8412)	2.3199 (0.7415)	1.8705 (0.0539)	2.0505 (0.8349)
5 - 6 인	99 (25%)	2.6061 (0.8523)	2.5000 (0.6917)	2.6182 (0.8610)	2.4545 (0.9753)	1.8848 (0.7635)	2.3737 (0.7200)	1.9444 (1.0495)	1.9874 (0.8131)
7 - 9 인	45 (11%)	2.7037 (0.9272)	2.4704 (0.7371)	2.6089 (0.8893)	2.1407 (0.9279)	1.6089 (0.6605)	2.0722 (0.7203)	1.9889 (0.9798)	1.9000 (0.7949)
총 계	395	2.5671 (0.8455)	2.4949 (0.7461)	2.6278 (0.7882)	2.4473 (0.9441)	1.8309 (0.7977)	2.2759 (0.7518)	1.9063 (1.0344)	2.0228 (0.8221)

9) 월평균소득

월평균소득에 따른 하위척도별 삶의 만족도를 ANOVA로 분석하기 위해 살펴본 6개 집단의 사례수와 평균값은 <표20>과 같다. 역시 대학생이 많았으므로 50만원이하에 35%, 100만원이하에 전체의 50%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0> 월평균소득에 따른 하위척도별 삶의 만족도 : 평균

구분	N(*)	가족 및 친척관계 평균(SD)	자아감 및 일반적 삶 평균(SD)	친구 및 대인관계 평균(SD)	주거환경 평균(SD)	신체 및 정신 건강 평균(SD)	의, 식, 경제정도 평균(SD)	여가활동 평균(SD)	직업 및 하루일과 평균(SD)
50만원 미만	126 (35%)	2.4392 (0.9167)	2.4749 (0.7340)	2.5635 (0.8010)	2.3968 (0.8302)	1.7063 (0.7396)	2.0377 (0.7000)	1.8690 (0.9720)	1.8790 (0.7992)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57 (16%)	2.3509 (0.9007)	2.3304 (0.7731)	2.8211 (0.6510)	2.2690 (0.9909)	1.7509 (0.7609)	2.3158 (0.6573)	1.8596 (0.9854)	2.1404 (0.7410)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59 (16%)	2.7062 (0.7456)	2.5311 (0.6270)	2.6102 (0.7900)	2.3446 (1.0504)	1.7797 (0.7902)	2.2924 (0.6682)	1.8559 (1.0299)	2.0593 (0.7433)
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49 (14%)	2.6122 (0.7212)	2.4490 (0.7885)	2.5510 (0.8150)	2.5306 (0.9278)	1.9551 (0.7497)	2.3010 (0.6332)	1.8367 (1.1743)	1.9949 (0.8547)
200만원이상 250만원미만	37 (10%)	2.6306 (0.7327)	2.4585 (0.6820)	2.5297 (0.8017)	2.6036 (1.0967)	1.8703 (0.8127)	2.5135 (0.6535)	1.8378 (1.0805)	1.8819 (0.7060)
250만원이상	32 (9%)	2.9063 (0.7537)	2.9583 (0.6626)	2.8875 (0.7165)	2.9063 (0.9588)	2.4750 (0.8810)	2.8750 (0.7594)	2.2656 (1.0775)	2.6016 (0.9855)
총 계	360	(0.8471)	2.4991 (0.7323)	2.6356 (0.7799)	2.4528 (0.9573)	1.8444 (0.7975)	2.2626 (0.7359)	1.8931 (1.0331)	2.0313 (0.8186)

무응답=35명

이를 ANOVA로 분석한 결과 <표21>에서 보여주듯이 4개 하위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그 5개 척도는 자아감 및 일반적 삶, 신체 및 정신 건강, 의,식,경제정도, 그리고 직업 및 하루일과이다. Scheffe's test에 의한 사후검증 결과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득이 삶의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³⁸⁾. 자아감 및 일반적 삶의 영역에서는 250만원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이 50만원미만이나 100만원미만의 소득을 갖는 사람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체 및 정신 건강의 영역에서는 250만원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이 150만원이하의 3개 집단 사람들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보였다. 의,식,경제정도 영역에서는 소득에 따른 차이가 확실히 보이는데 250만원이상을 버는 사람은 250만원이하를 버는 모든 사람들보다 만족한다. 반면에 직업 및 하루일과 영역에서는 250만원이상 소

38) Bradburn, 앞글, 1969; Campbell, et al., 앞글, 1976.

득자가 50만원미만 소득자보다 더 만족하는 현상도 보였지만, 200만원의 소득을 낸다 하더라도 250만원 소득자보다 덜 만족한다는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표21> 월평균소득에 따른 하위척도별 삶의 만족도 : ANOVA

		df	SS	MS	F값	P값
자일 아반 감적 및삶	집단간	5	8.6862	1.7372	3.3457	0.0058
	집단내	354	183.8135	0.5192		
	총 계	359	192.4997			
신경 체신 건 및강	집단간	5	16.4974	3.2995	5.5139	0.0001
	집단내	354	211.8315	0.5984		
	총 계	359	228.8289			
의경 제 식제 도	집단간	5	20.8450	4.1690	8.5021	0.0000
	집단내	354	173.5840	0.4904		
	총 계	359	194.4290			
직하 업루 및일 과	집단간	5	14.8384	2.9677	4.6937	0.0004
	집단내	354	225.7475	0.6377		
	총 계	359	240.5859			

10) 요약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살펴 본 결과 9개 사회인구학적 변인중에서 직업, 종교, 동거하는 가족수 변인들은 각각이 그 형태에 따라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주거환경측면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연령, 결혼상태, 월평균소득 변인들은 각각이 그 형태에 따라 하위척도별 삶의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은 40-50대가,

결혼에 있어서는 미혼보다 기혼이, 그리고 월평균소득은 높은 사람이 그 이외의 사람보다 신체 및 정신 건강 측면에서, 직업 및 하루일과 측면에서, 그리고 의식,경제측면에서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0-50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혼일 것이고 이정도 나이라면 소득도 높을 것이며, 이렇게 안정되었으므로 다양한 하위척도에서 만족도를 높이 보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외에 중요한 특징만 살펴본다면, 성별, 연령, 결혼상태의 형태에 따라 가족 및 친척관계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교육정도, 결혼상태, 월평균소득에 따라 자아감 및 일반적인 삶의 만족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논의한 「삶의 만족 척도」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사업의 궁극적 목적의 하나인 정신장애인들의 주관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개발 및 척도의 신빙성 검증에 주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둘째, 척도의 신빙성 검증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일반인들의 삶의 만족 정도를 제시하여 정신장애인 또는 다른 집단의 삶의 만족 정도를 분석하는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같은 목적을 가진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두 단계의 과정으로 수행하였는데, 먼저 삶의 만족 척도의 신빙성 검증을 위하여 신뢰도 검사와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삶의 만족도를 하위척도별로 주요 상관변인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분석 결과에 따른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삶의 만족 척도」는 신뢰도가 높고 타당도도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이 척도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문항번호

9의 이성친구(배우자)관련 항목이 척도내에서 안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졌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성 관련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익숙치 않으며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를 가족과 별도로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항목을 척도에서 유지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척도를 사용할 때 사용자의 임의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삶의 만족 척도』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다른 집단에게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삶의 만족 정도 분석에서 보았듯이 개인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하위척도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별력있는 결과를 보임에 따라 정신장애인, 노인, 지체장애인 등의 삶의 만족 연구에도 활용이 가능함을 함축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중심내용인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만족을 분석하기 위한 예비적 절차이다. 일단 척도자체의 신빙성이 입증된 만큼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질,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가 진척되기를 기대한다.

<부록표1> 변인의 평균값과 분포도

변인	평균값 Mean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편포도 skewness	용도 kurtosis
S1	2.572	1.067	-0.617	-0.131
S2	2.478	1.127	-0.443	-0.572
S3	2.291	1.278	-0.265	-1.053
S4	2.603	1.013	-0.333	-0.350
S5	2.446	0.974	-0.410	-0.329
S6	2.759	1.115	-0.562	-0.646
S7	2.770	1.085	-0.658	-0.287
S8	2.504	1.084	-0.310	-0.734
S9	2.066	1.304	-0.095	-1.032
S10	2.965	1.024	-0.940	-0.418
S11	2.919	0.963	-0.951	-0.697
S12	1.818	1.121	-0.038	-0.723
S13	1.635	1.175	0.314	-0.744
S14	1.739	1.109	0.024	-1.178
S15	1.934	0.800	-0.090	-0.388
S16	1.947	1.140	-0.146	-0.833
S17	1.899	1.133	-0.042	-0.778
S18	2.203	1.057	-0.178	-0.628
S19	1.673	1.141	0.263	-0.647
S20	1.965	1.128	0.006	-0.779
S21	2.091	1.014	0.110	-0.533
S22	2.527	0.905	-0.514	0.021
S23	2.580	0.879	-0.538	0.204
S24	2.273	0.919	-0.332	-0.211
S25	1.942	1.052	-0.015	-0.809
S26	1.876	1.206	-0.004	-0.950
S27	1.937	1.137	-0.115	-0.930
S28	2.301	0.991	-0.334	-0.549
S29	2.562	0.886	-0.453	0.300
S30	2.428	0.957	-0.300	-0.084
S31	2.458	1.095	-0.296	-0.794
S32	2.848	0.957	-0.478	-0.320
S33	2.372	1.030	-0.444	-0.377

<부록표2> 하위척도의 평균값과 분포도

하위척도	평균값 Mean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편포도 Skewness	용도 Kurtosis
가족및 친척관계	2.567	0.845	- 0.631	0.160
자아감 및 일반적 삶	2.495	0.746	- 0.302	0.213
친척 및 대인관계	2.628	0.788	- 0.402	- 0.315
주거환경	2.447	0.944	- 0.295	- 0.392
신체 및 정신 건강	1.831	0.798	0.147	- 0.247
의·식·경제정도	2.276	0.752	0.109	- 0.109
여가활동	1.906	1.034	- 0.007	- 0.773
직업 및 하루일과	2.023	0.822	0.054	- 0.362